

접속어미 ‘-어다가’와 ‘-어서’에 대해서

양지현(경상대 국어국문학과 강사)

〈 목 차 〉

- | | |
|-------------------------|------------------------|
| 1. 들머리 | 3. ‘-어서’의 의미기능과 통사적 특성 |
| 2. ‘-어다가’의 의미기능과 통사적 특성 | 3.1. ‘-어서’의 의미기능 |
| 2.1. ‘-어다가’의 의미기능 | 3.2. ‘-어서’의 통사적 특성 |
| 2.2. ‘-어다가’의 통사적 특성 | 4. ‘-어다가’와 ‘-어서’의 쓰임 |
| | 5. 마무리 |

국문초록

현대어에서 ‘-어다가’와 ‘-어서’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의미상 시간적 선후 관계를 드러내는 접속어미로 기술되어 있다. 의미가 유사하게 기술되어 있는 데다가 언어환경에 따라 쓰임이 겹치기도 하고 차이를 보이기도 하므로, 각각 의미와 쓰임을 살펴 명확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어다가’와 ‘-어서’에 대해 어떻게 쓰였는지 중세부터 되짚어 보고 그 통사적 특징도 각각 살펴보았다. 이후 두 접속어미 쓰임에 대해서도 비교해보았다.

‘-어다가’는 선행동작을 바탕으로 하여 후행동작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접속어미이며, 물건이나 대상이 있는 쪽, 또는 다음 동작이 일어날 장소로 ‘이동’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는 접속어미이다. ‘-어서’에 의해 접속된 문장은 순차적이고 연속된 동작·상태를 보여주지만, 후행절에 이끌린 문장에 따라 단순히 먼저 일어난 행위나 상황을 나타내는 문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두 접속어미는 타동사를 취하는 문장으로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를 제외하고는 상이하게 쓰인다. ‘-어다가’

는 ‘가져다가’, ‘데려다가’, ‘모셔다가’ 형태로 현대어에서 관용 어휘처럼 쓰이고 있지만, ‘-어서’는 ‘데리-’ 동사와 결합하지 않고 ‘모시-’, ‘가지-’ 동사와 어울릴 경우 후행절에 대한 계기나 이유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어다가’는 보조용언 ‘놓(두)-’, ‘주-’를 취할 수 있으나 ‘-어서’는 보조용언을 취할 수 없다. ‘-어서’는 선행용언으로 타동사뿐 아니라 자동사나 형용사도 취할 수 있으며, ‘-어서’에 의해 접속된 문장은 선행절이 후행절의 수단이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마시-, 삼키-, 들이키-, 먹-’, ‘없애-’ 등과 같이 행위로 인해 그 대상이 후행절의 대상(목적어)이 되지 못하는 동사를 선행동사로 취할 수도 있다.

주제어 : 접속어미, 의미기능, 통사적 특징, 순차적, ‘-어다가’, ‘-어서’

1. 들머리

현대어에서 일부 접속어미들은 유사한 의미기능으로 쓰이거나 각각이 지닌 의미기능 중 일부가 겹쳐진 채 쓰이기도 한다. 이 접속어미들에 대한 기술도 명확하지 않아 때로는 그 의미는 물론 쓰임까지 제대로 구분되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접속어미 중에는 ‘-어다가’와 ‘-어서’도 있다.¹⁾

현재 ‘-어다가’는 한 동작을 다음 동작과 순차적으로, 즉 시간에 따라 차례로 이어주는 접속어미이며, ‘-어서’는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어미로 기술되어 쓰이고 있다.

이 유사한 의미기능을 지닌 ‘-어다가’와 ‘-어서’는 아래 (1)에서 보듯, 문맥에서 같은 의미로 이해되기도 한다.

1) ‘-어다가/아다가/여다가’와 ‘-어서/아서/여서’는 각각 ‘-어다가’, ‘-어서’로 기술한다.

- (1) ㄱ. 은행에서 돈을 {찾아다가/찾아서} 등록금을 냈다.
 ㄴ. 날이 흐려 빨래를 {걸어다가/걸어서} 갔다.

위의 (1ㄱ)은 은행에서 돈을 찾은 후 그 돈을 등록금으로 냈다는 의미가, (1ㄴ)은 날이 흐려 빨래를 걸은 후 그 빨래를 갔다는 의미가 드러나는 문장이다. (1ㄱ)이나 (1ㄴ)에서는 ‘-어다가’나 ‘-어서’ 중 어떤 접속어미로 쓰이더라도 의미상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두 접속어미가 통용되어 쓰이는 접속어미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어느 언어 환경에서도 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는 ‘-어다가’와 ‘-어서’가 각각 다른 접속어미로서 그 쓰임이 다름을 보여준다.

- (2) ㄱ. 고아를 {데려다가/*데려서} 정성껏 키웠다.
 ㄴ. 풀단지를 찬장에 {올려다가/*올려서} 놔다.
 ㄷ. 그는 증거자료를 {*삼켜다가, 삼켜서} 없앴다.
 ㄹ. 우리 주말에 {*모여다가/모여서} 이 일을 의논하자.

위 (2)에서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의미상 시간적 선후 관계를 드러내지만 ‘-어다가’나 ‘-어서’가 쓰이는 데에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 글에서는 ‘-어다가’와 ‘-어서’의 의미기능에 대해 중세부터 어떻게 쓰였는지 되짚어 보고 그 통사적 특징도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두 접속어미 쓰임의 차이에 대해서도 비교하여 명확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어다가’와 ‘-어서’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다가’에 대한 논의이다. 동사 ‘다-(혹은 다그-)’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의 한 부분에서 ‘-어다가’에 대한 논의가 주로 언급되고 있는데,²⁾ 이러한 논의들은 ‘-어다가’가 동사 ‘다(把)-’와 의미적으로나 형태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외 ‘-어다가’에 대한 단독 논의로는 오경진(2002)가 있

2) 이에 대한 논의로는 최현배(1960), 김영희(1975), 김문웅(1982), 이남순(1996)과 이숙(2006) 등이 있다.

다. 이 논의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어다가’의 의미와 통사적 제약에 초점을 두고 살폈다.

다음은 ‘-어서’에 대한 논의이다. 크게 ‘-어서’는 ‘-어’와 ‘서’의 분리 여부에 따라 ‘-어’와 ‘-어서’가 서로 변이형이라는 견해와 각각 다른 형태임을 밝히려는 견해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어서’의 ‘서’에 특정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 ‘서’는 중세어 ‘시(有)-’에서 비롯된 활용형임을 강조한다.³⁾

‘-어다가’와 ‘-어서’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에는 홍윤표(1984)가 있다. 그러나 이 논의는 후치사 ‘가지고’에 대한 통사적 기능과 의미를 구명하면서, ‘-어 가지고’와 유사한 기능을 있음을 가볍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2. ‘-어다가’의 의미기능과 통사적 특성

2.1. ‘-어다가’의 의미기능

‘-어다가’의 ‘다가’는 그 기본형을 ‘닥-’으로 보느냐 ‘다그-’로 보느냐에 따라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⁴⁾ 기본형 어간 ‘닥-’에 ‘-어’가 결합한 활용형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은 일치한다.

이 ‘-어다가’는 15세기부터 사용되었으며, 그에 대한 예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어’와 ‘-어서’를 서로 다른 형태로 보려는 견해로는 고영근(1975), 서정수(1982), 권재일(1983), 유송영(1994) 등이 있으며, ‘-어서’의 ‘-서’가 중세어 ‘시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견해에는 임홍빈(1975), 이승녕(1976), 서정목(1984), 안명철(1985), 서태룡(1988), 이기갑(1998) 등이 있다.

4) 동사의 기본형을 ‘닥-’로 보는 논의로는 최현배(1960), 김영희(1975), 김미희(2014) 등이 있고, ‘다그/다ㄱ’로 보는 논의로는 이남순(1996), 박용찬(2014) 등이 있다.

- (4) ㄱ. 네 물들 모라다가 한디 잇게 흐라 수이 보습필 거시라 <翻老上58a>
 ㄴ. 그 프를 받즈바늘 菩薩이 바다다가 쓰르시니 <釋詳3:43a>
 ㄷ. 王이 블러다가 太子스 버들 사므샤 <釋詳3:18b>
 ㄹ. 한 고현 고졸 다마다가 다른 나랏 十萬億弗을 쓰르시니 <月釋7:65b>
 ㄹ. 盟誓코 日月을 자바다가 귀엿 구슬 호리라 <月釋11:29b>

위의 (4)에서 보듯, ‘-어다가’에 의해 선행동작과 후행동작은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일어난다. 그런데 해석상 선행동작으로 인해 후행동작이 이뤄짐을 알 수 있다. 즉, (4ㄱ)에서 보듯, 먼저 말들을 모는 동작이 있어야 그 말들이 한데 잇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바다다가’, ‘블러다가’, ‘다마다가’, ‘자바다가’와 같은 동작으로 인해 ‘쓰르시니’, ‘버들 사므샤’, ‘다른 나랏 十萬億弗을 쓰르시니’, ‘귀엿 구슬 호리라’와 같은 동작이 이뤄진다. 선행동작은 후행동작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동작인 것이다. 이는 ‘-어다가’의 ‘다가’와 관련 있어 보인다. ‘-어다가’의 ‘다가’는 원래 ‘把’의 의미를 지닌 용언으로,⁵⁾ 비록 그 의미가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 ‘把’의 의미가 다소 내재된다. 그래서 ‘-어다가’에 의한 문장은 ‘선행동작을 갖추고(가지고)’, ‘선행동작을 바탕으로’, ‘선행동작을 하여’ 이루어지는 동작이 후행동작이 되는 것이다. 즉 선행동작은 후행동작의 ‘전제동작’인 것이다.

이러한 접속어미 ‘-어다가’는 같은 의미를 지닌 용언인 ‘가지-’와 잘 어울려 쓰인다.

- (5) ㄱ. 머육과 쌀과 쉼을 가져다가 주더라 <續三호24b>

5) ‘다가’의 ‘다-’은 ‘把’의 의미를 지닌 타동사로 쓰인 예이다.

- (예) ㄱ. 미실 學長이 곁외는 學生을 다가 스승님께 숲고 그리 터도 다함 저티 아닌는 <翻老上7ab>
 ㄴ. 속결업시 찢 임자와 겨뵈 평신을 다가 의심하야 터 저주니 후에 다른 덧 마스리 <翻老上27b-28b>
 ㄷ. 溝橋스 란간엿 스지 머리를 즘마 너머 쉬문을 다가 다 다달어 히야 버리고 <翻村9b>

- ㄴ. 내 값과 내 일홈과 가져다가 聖人의 받즈븨쇼셔 햏야늘 <月釋8:94a>
- ㄷ. 俱夷 고졸 가져다가 노코 쏘 나사오려 커시늘 <釋詳3:15a>
- ㄹ. 밥을 질오 둑을 가져다가 그 밥을 먹게 햏며 쏘 둑을 아나 알폰 더 <救簡1:92a>

위 (5)의 예는 ‘가져다가’ 형태로 쓰인 것이다. 이 역시 (5ㄱ)에서 보듯, 머 육과 밭과 좃을 ‘가지는’ 동작은 이를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5ㄴ)~(5ㄹ)도 마찬가지이다.

- (6) ㄱ. 옴겨다가 道를 사물썩 <月釋11:121b>
- ㄴ. 옴겨 가져다가 道 사므니 <月釋11:121a>

- (7) ㄱ. 사다가 안직 간대로 툃돌 <飜朴64a>⁶⁾
- ㄴ. 사 가져다가 아직 간대로 툃면 <林通上56b>

위의 (6)과 (7)은 ‘가져다가’와 ‘다가’가 교체되어 쓰인 예이다. ‘다가’에 ‘가지(把)-’의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예라고 하겠다.

‘가져다가’가 사물에 쓰는 표현이라면 대상이 사람일 때는 아래와 같이 ‘데리-’, ‘모시-’와 결합한 ‘데려다가’, ‘모셔다가’로 나타나게 된다.

- (8) ㄱ. 내 香水로 브를 뿌고 부텃 舍利를 피셔다가 供養햏스븨리라 <釋詳23:46a>
- ㄴ. 가히 은덕이 동궁 무스리 업관을 다려다가 그 경 넓은 덕을 ㄱ러 처 <계축상49a>

‘가져다가’는 그 쓰임이 빈번해 현대어에서도 관용 어휘처럼 쓰이고 있다. ‘데려다가’, ‘모셔다가’도 마찬가지이다.

6) 위 (7)은 박용찬(2014)의 예를 인용한 것이다. 박용찬(2014)에서는 ‘가져다가’가 관용형식으로 쓰이다 보니 ‘-어다가’가 ‘가져다가’와 교체되어 쓰였다고 보았다.

그런데 ‘-어다가’에는 ‘이동’의 의미도 다소 내포하고 있다. 아래 예에서는 ‘가져다가’가 ‘가져와’로 쓰였는데, ‘가져다가’가 쓰인 (9ㄱ)과 ‘가져와’가 쓰인 (9ㄴ)이 그 의미 차이가 나지 않음에서 알 수 있다.⁷⁾ 오히려 ‘가져’라고 쓰는 것보다 ‘가져와’로 쓰인 것이 더 ‘가져다가’의 의미에 적합하고 자연스러워 보인다.

- (9) ㄱ. 바윗 뼈때 프른 너추레 두 외 여랫거늘 가져다가 머기니 病이 즉자
 히 도흐니라 <三綱뎨뎨孝30>
 ㄴ. 하늘의 비니 고기 네히 뛰어나거늘 가져와 머기니 病이 즉제 도흐
 니라 <續三효28a>

아래의 예 역시 모두 선행 동작에 이동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 이동은 후행 동작이 일어나는 곳과 근접한 곳으로의 이동이자, 후행 동작을 하기 위한 이동으로, 이 ‘-어다가’에는 ‘이동’의 의미가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⁸⁾

7) 박용찬(2014)에서는 ‘번역박통사’, ‘번역노걸대’에서 ‘가져다가’의 쓰임을 살폈다. 그 결과, ‘가져다가’가 ‘가져와’로 교체된 점을 들어, 중세어 ‘닥(다?)’은 본래 ‘將’, ‘把’ 등의 어휘적 의미를 갖는 말이나, 얼마간 ‘이동’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였다.

(예) ㄱ. 이 활 썬 우회 힘 쓰라 가져다가 날 빈 후에 <麟朴60a>
 ㄴ. 이 활면에 힘을 쓰라 가져와 날을 빈 후에 <朴通上53b>

현재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용언 ‘다그-’로 기술하여 ‘물건 따위를 어떤 방향으로 가까이 옮기다’, ‘어떤 대상이 있는 쪽으로 몸을 움직여 그 대상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다’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역시 ‘이동’과 관련되며, ‘-어다가’에도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 ㄱ. 의자를 창 쪽으로 다가 두어라
 ㄴ. 뒤에 바짝 다가 나온 교감은 한철의 소매를 붙잡으며 아주 침통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8) 이숙(2006)에서는 목적어의 논항을 후행동사의 움직임이 발생하는 쪽으로 ‘가깝게 이동’시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밥상을 끌어다가 먹다). 김미희(2014)에서는 ‘-어다가’가 ‘소유’를 전제로 선행질의 행위가 후행질의 수단이나 재료가 된다고 파악하였다. ‘옷을 주워다 버렸다’를 예를 들어, 옷을 일단 줍고 그리고 나서 그

- (10) ㄱ. 제비가 먹이를 {물어다가, ?물어} 새끼에게 먹였다.
 ㄴ. 의자를 {끌어다가, ?끌어} 앉으십시오.

위의 예는 현대어에서 ‘-어다가’가 쓰인 문장이다. ‘-어다가’에서 ‘다가’를 빼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이동’의 의미를 담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록 ‘다가’가 허사화한 것으로 보는 논의도 있을 만큼⁹⁾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어다가’에 ‘다가’가 삭제되면 그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11) ㄱ. 제비가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에게 먹였다.
 ㄴ. 상자를 끌어다가 이쪽에 두었습니다.
 ㄷ. 틀린 이유를 알아다가 가르쳐 주세요

(11)에서 보듯, 후행절에서 주체의 행위는 선행절에서 주체의 행위가 일어난 장소나 위치와 다를 경우 그 의미는 후행절에서 주체의 동작이 일어나는 장소로의 ‘이동’이나 ‘주체 가까이’의 의미가 추가된다. 즉, 이 이동은 후행동작을 하기 위한 이동이 되는 것이다.

현대어에서 ‘-어다가’는 한 동작을 다음 동작과 순차적으로 이어주는 접속어미로만 기술되어 쓰이고 있다. ‘-어다가’는 단순히 선행 동작과 후행 동작을 순차적으로 연결한다기보다는 후행절의 동작을 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동작을 연결하는 접속어미이며, 이를 위해 물건이나 대상이 있는 쪽, 다음 동작이 일어날 장소로 ‘가까이 움직이는 행위’, 즉 ‘이동’의 의미도 들어 있는 접속어미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것을 버렸다는 의미로 일시적으로나마 옷을 ‘소유’하고 ‘운반’했다는 사실을 내포한다고 본 것이다.

9) 오경진(2002)에서는 ‘-어다가’의 ‘다가’는 ‘닥-’의 활용형으로 차츰 자립성과 의미를 상실하면서 허사화하고 문법화되어 굳어진 것으로 보았다.

2.2. ‘-어다가’의 통사적 특성

현대어에서 ‘-어다가’는 이미 문법화되었기에 용언으로서의 ‘다가’가 의미나 통사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용언이 지닌 의미가 녹아 있어 아래와 같은 특성을 더해주기도 한다. ‘-어다가’의 통사적 특성은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어다가’가 결합하는 동사는 타동사이다. 타동사였던 ‘닥-’이 접속어미가 된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아래 (13)에서처럼 자동사와 결합한 ‘-어다가’는 비문이 된다.

(12) ㄱ. 창수가 집에서 빵을 만들어다가 먹었다.

ㄴ. 철수는 샘에서 물을 떠다가 마셨다.

ㄷ. 화초를 잡초인 줄 알고 뜯어다가 버렸다

(13) ㄱ. *사람은 죽어다가 이름을 남긴다.

ㄴ. *우리 주말에 모여다가 이 일을 의논하자.

ㄷ. *그의 품에 안겨다가 울었다.

둘째,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와 목적어가 같아야 한다. 주체가 행하는 대상에 대한 선행동작은 후행동작을 위한 전제동작이므로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와 목적어는 같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선행절에 쓰이는 타동사의 목적어는 동작을 한 후에도 남아 있어야 한다.¹⁰⁾ 동작을 한 이후에 목적어가 남아 있지 않는다면 ‘-어다가’와 결합할 수 없다. 그러나 후행절에서는 주어와 목적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¹¹⁾

10) 아래 예는 선행절의 목적어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표현이 다른 것일 뿐, 같은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돈=등록금, 쌀(rice)=밥(rice))

(예) ㄱ. 돈을 찾아다가 등록금을 냈다.

ㄴ. 쌀을 씻어다가 밥을 지었다.

11) ‘의자를 끌어다가 앉으세요’는 후행절로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앉-’가 쓰인 문장이다. 그러나 이 표현은 정확히, ‘의자를 끌어와서 의자를 놓고 앉으세요’의 의

- (14) ㄱ. 창수가 집에서 빵을 만들어다가 (창수가 빵을) 먹었다.
 ㄴ. 철수는 샘에서 물을 떠다가 (철수가 물을) 마셨다.
 ㄷ. 그가 화초를 잡초인 줄 알고 뜯어다가 (그가 화초를) 버렸다.

셋째, ‘마시-, 삼키-, 들이키-, 먹-’, ‘없애-’ 등과 같은 동사가 선행동사로 올 경우, 선행절의 목적어가 남아 있지 않게 되어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지 못하므로, 앞서 언급했듯, 이 동사들은 ‘-어다가’와 어울리지 못한다.¹²⁾

- (15) ㄱ. *그는 술을 마셔다가 취했다
 ㄴ. *부동산 거품을 없애다가 경제를 활성화하자.

넷째, 용언 ‘데리-/모시-/가지-’와 잘 어울린다. ‘다가’가 지닌 어휘적 의미의 영향으로, 중세 때부터 쓰이다가 현대어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빈번한 사용으로 ‘모셔다드리-’, ‘가져다주-’, ‘데려다주-’는 현대어에서 합성어가 되었다.

- (16) ㄱ. 귀빈을 모셔다가 푸대접하다니!
 ㄴ. 아이를 데려다가 깨끗이 씻겼다.
 ㄷ. 내가 대신 가져다가 줄게요.

다섯째, ‘이동’의 의미가 내포된 ‘-어다가’는 이동 타동사와도 잘 어울려 쓰인다. 즉 선행동사로 ‘옮기-’, ‘끌-’, ‘밀-’, ‘당기-’와 같은 동사가 어울려 ‘옮겨다가’, ‘끌어다가’, ‘밀어다가’, ‘당겨다가’ 형태로 쓰인다.

- (17) ㄱ. 꽃을 다른 화분으로 옮겨다가 심었다.
 ㄴ. 돈이 부족해도 공금을 끌어다가 쓰면 안 돼.

미를 지닌 문장으로 볼 수 있다.

12) 오경진(2002)에서는 ‘-어다가’에 통합 가능한 동사를 ‘목적어를 동작의 결과로 남기는 타동사’로 보았다.

- ㄱ. 한쪽 난간에서 그 석상을 밀어다가 아래로 떨어뜨렸다.
- ㄴ. 그 줄을 쪽 당겨다가 퐁퐁 묶어 버렸다.

여섯째, ‘-어다가’는 선어말어미 ‘-었-’, ‘-겠-’, ‘-시-’ 와 결합하지 않는다.

- (18) ㄱ. *은행에서 돈을 찾았어다가 등록금을 냈어요.
- ㄴ. *은행에서 돈을 찾겠어다가 등록금을 냅니다.
- ㄷ. *어머니께서 숙을 뜯으셔다가 떡을 만드셨어요.

일곱째, ‘-어다가’는 후행 동사로 보조용언 ‘-어 놓(두)-’, ‘-어 주-’를 취할 수 있다. 이때는 축약형인 ‘-어다’와 더 잘 어울리며, ‘다가’의 축약으로(도상성의 약화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¹³⁾

- (19) ㄱ. 꽃병에 꽃을 꽂아다(가) 놓았다.
- ㄴ. 꼴단지를 찬장에 올려다(가) 뒀다.
- ㄷ. 내가 대신 김밥을 만들어다(가) 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 ㄹ. 창수는 친구의 차를 대신 수리해다(가) 주었다.

3. ‘-어서’의 의미기능과 통사적 특성

3.1. ‘-어서’의 의미기능

‘-어서’와 관련한 논의 중 통사적 논의에서는 ‘-어서’의 ‘서’를 중세어 ‘시(有)-’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서’는 중세어 ‘시(有)-’에서 비롯된 것

-
- 13) ‘-어다가’는 ‘-어다’로 축약하여 자주 쓰이는데, ‘-어 놓(두)-’, ‘-어 주-’이 결합된 경우, 축약된 형태인 ‘-어다 놓/주-’ 구성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 예) ㄱ. 꽃병에 꽃을 꽂아다 놓았다.
 - ㄴ. 제가 짐까지 바래다 드릴까요?

으로 기본형 어간에 ‘-어’가 결합한 활용형이라는 데에 이견이 있는 논의는 없다.¹⁴⁾ 아래는 이에 대한 예를 보여준 것이다.

- (20) ㄱ. 그 뻘 五百太子 | 蓮 못 ㄱ새 ㅁ다 안자 이셔 물 ㅁ뵈트 ㄱ르메를 보
고 서르닐오더 <釋詳11:36a>
ㄴ. ㄱ릍 그테 안자셔 도라오디 아니호니 <杜詩11:20a>

위의 (20) 예에서 보듯, ‘-어셔’는 ‘-어 있어’에 해당되므로, 밑줄 친 (20ㄱ)과 (20ㄴ)은 그 해석상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미 앉아 있는 상태’ 즉,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이후 일어나는 물 밑의 그림자를 보거나(20ㄱ) 돌아오지 않는(20ㄴ) 등의 순차적이고도 연속된 동작.상태를 나타내는 후행절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21) ㄱ. 醉코 茱萸를 자마셔 子細히 볼 디로다 <杜詩11:33b>
ㄴ. 사란는 목수뵈 ㅁ겨셔 이바디 잔치호미오 <장수44b>
ㄷ. 주검을 ㅁ의 가져다가 두고 새도록 안아셔 울고 옷술 프라 관을
사 무드니라 <續三重효15a>

(21ㄱ)은 (수유를) 자세히 보기 위해 수유를 잡는 동작이 선행되어 드러나는 문장이라면, (21ㄴ)은 이바지 잔치를 하기 위해 살아 있는 목숨을 죽이는 동작이 선행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살아 있는 목숨을 죽이고 그 목숨(값)으로 이바지 잔치를 한다는 선후 관계가 드러나는 문장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21ㄷ)은 주검을 안고 운다는 선후 관계만 드러나는 문장으로 해석된다. 즉 ‘-어셔’에 의한 문장은 순차적이고 연속된 동작, 상태를 보여주지만, 선행절의 동작이 후행동작을 하기 위한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단순히 ‘먼저 일어

14) 서정목(1984), 안명철(1985)에서는 ‘-어셔’의 ‘셔’를 중세어 ‘시다’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았다. 이기갑(1998)에서 ‘-어셔’는 기원적으로 ‘-어’와 ‘-셔’로 분석되며, ‘-셔’는 존재동사 ‘시-’의 부사형으로 ‘-어셔’의 원 의미는 ‘-어 있어’가 되므로, ‘-어셔’는 ‘-어’에 ‘존재’ 또는 ‘상태’의 의미가 추가된 것으로 보았다.

난 상황'을 나타내는 문장이 될 수도 있다.

이는 현대어에서도 마찬가지다.

(22) ㄱ. 구멍 난 양말을 기워서 신었다.

ㄴ. 창수는 고기를 잡아서 구워 먹었다.

ㄷ. 곰 인형을 포장해서 리본으로 묶었다.

(22)의 예는 모두 선후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는 하다. 그러나 (22ㄱ)의 예는 (양말을) 신기 위해 기우는 것, 선행동작이 후행동작의 전제동작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22ㄴ) 창수가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 앞서 해야만 하는 동작이 고기를 잡는 것임을 보여주기도 하고, 창수가 고기를 잡았고 그 고기를 (찌서 먹지 않고) 구워 먹었다는 시간적 선후 관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22ㄷ)은 선행절과 후행절이 순차적 관계만 드러난다.

(23) ㄱ. 滄江에 와서 셴 머리에 시름허야 너를 보노니 <杜詩17:38b>

ㄴ. 樓 우회서 수을 먹고 樓 아래 누어서 긴 놀애와 더른 이푸를 도로
서르 갑눗다 <杜詩8:28a>

(24) ㄱ. 그 中에 너의 生死를 바다서 손지 더 末伽梨等の 모다 닐오디<楞
嚴2:10a>

ㄴ. 豺狼은 바닐 어더서 수스느다 <杜詩14:23a>

위의 예는 중세어에 ‘-어서’가 쓰인 예이다. 선행용언으로 자동사(23)나 타동사(24) 모두 쓰이고 있다.

(25) ㄱ. 내 이 ㅅㅅ를 나하 길오니 ㅎ 일도 몰라서 날 여희어 가느니 <釋詳
11:29a>

ㄴ. 긴 ㅅㅅ 吹角 소리에 슬허서 내 말ㅎ노니 <杜詩6:15b>

ㄷ. 내 겨지비라서 節介 | 受티 몰ㅎ고 이 소니 ㄴ밋게 쥐유니 <三綱

런던烈16>

- ㄹ. 궁헌 제 일 업서서 너히 이룰 흐리러니 <순천37:11>
- ㄹ. 지비 이서서 샹네 일 날오 나랏 일 시름하야 <杜詩8:52a>
- ㄹ. 흐올로 陰崖에 이서서 새 지블 지셋도다 <杜詩9:8a>

위의 예는 형용사, ‘명사+이다’가 선행용언으로 왔을 때이다. (25)의 예는 ‘계기’를 드러내며 현대어에서 ‘-어서’의 쓰임과도 동일하다. 위의 (25ㄹ), (25ㄹ) 예에서처럼 ‘시(有)-’에 ‘-어서’가 어울린 것도 마찬가지이다.

- (26) ㄱ. 겨우루 가져서 보디 저기 네 곧거든 썰리 시서 브리라 <救簡 1:25b>
- ㄴ. 萬歲를 가져서 天子를 衛護하야 <杜詩16:55b>
- ㄷ. 네 은을 언매나 가져서 사고져 흐는다 <麟村62b>

(26)는 ‘가지-’에 ‘-어서’가 어울린 ‘가져서’가 쓰인 예이다. 순차의 의미로 쓰인 것인데 현대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현대어에서는 ‘가져서’가 아래 (27)와 같이 계기를 나타낼 때만 쓰이고 있다.

- (27) ㄱ. 재물을 많이 가져서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았다.
- ㄴ. 아이가 누나의 인형을 {못 가져서, 가지지 못해서} 울고 있다

3.2. ‘-어서’의 통사적 특성

현대어에서 ‘-어서’는 이미 문법화되어 쓰임이 활발한 접속어미이다. 이러한 ‘-어서’의 통사적 특성은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선행용언에 자동사나 타동사 모두 쓸 수 있다. 물론 후행용언으로도 자동사나 타동사 모두 쓸 수 있다.

- (28) ㄱ. 여기로 와서 직접 봐라

- ㄴ. 젖은 옷을 말려서 입었다.
- ㄷ. 지갑을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둘째, 선행절과 후행절 주어의 일치해야 한다.

- (29) ㄱ. *창수가 고기를 잡아서 (철수가) 삶아 먹었다.
 ㄴ. *철수가 좋은 점수를 받아서 (창수가) 대학에 들어갔다.

셋째, 선행절과 후행절의 목적어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선행절의 목적어가 같으면 후행절에서 목적어가 생략되기도 한다. 또한, 선행절이나 후행절이 자동사를 취해 목적어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 (30) ㄱ. 돈을 찾아서 (그 돈을) 등록금으로 냈다.
 ㄴ. 못을 박아서 액자를 걸었다.
 ㄷ.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넷째, 선행절은 후행절의 수단이나 방법이 된다.

- (31) ㄱ. 등을 두드려서 소화를 시켰다.
 ㄴ. 호랑이가 토끼를 물어서 죽였다
 ㄷ. 창수가 수도꼭지를 반대로 돌려서 틀려고 했다.

다섯째, ‘테리-’ 동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모시-’, ‘가지-’ 동사와 어울릴 경우 후행절에 대한 계기나 이유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 (32) ㄱ. 귀빈을 모셔서 영광입니다
 ㄴ. 유산을 많이 가져서 결국 탈이 났다.
 ㄷ. *고아를 테려서 친자식처럼 키웠다.

‘-어다가’가 주로 쓰이는 자리에 ‘-어서’를 쓰지 못한다. 아래 (32)는 (17)의 예에서 ‘-어다가’와 어울려 쓰인 예로 ‘-어서’와는 어울리지 못함을 보인다.

- (33) 가. *귀빈을 모셔서 푸대접하다니!
나. *아이를 데려서 깨끗이 씻겼다.
다. *내가 대신 가져서 줄게요.

여섯째, ‘-어서’는 선어말어미 ‘-었-’, ‘-겠-’과는 결합하지 않지만, 높임의 ‘-시-’와는 결합한다.

- (34) 가. *지갑을 찾았어서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나. *돈을 찾겠어서 등록금을 냅니다.¹⁵⁾
다. 바쁘시더라도 돌잔치에 꼭 오셔서 축하해 주십시오.

4. ‘-어다가’와 ‘-어서’의 쓰임

‘-어다가’와 ‘-어서’는 둘 다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어미로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체가 일치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가진 어미이다. 유사한 의미기능을 가진 이 두 접속어미는 유사한 통사적 특성을 보이기도 하고 전혀 다른 통사적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앞서 밝힌 바를 바탕으로 이 둘의 쓰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다가’와 ‘-어서’가 유사하게 쓰일 수 있는 경우는 선행용언이 타동사일 경우이다. 이때 선행용언은 후행동작을 하기 위한 연속된 전제동작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어다가’에 의한 문장은 어색한 문장이 된다.

15) 요즘 입말에서 ‘혼자 공부하러니 모르겠어서 여쭙습니다.’와 같이 ‘-겠-’을 쓰는 경향이 있으나 적격한 것은 아니다.

- (35) ㄱ. 그는 샘에서 물을 바가지로 {떠다가, 떠서} 마셨다.
 ㄴ. 화초를 잡초인 줄 알고 {뜯어다가, 뜯어서} 버렸다.

- (36) ㄱ. 여기로 {*와다가, 와서} TV를 봐라
 ㄴ. 호랑이는 {*죽어다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둘째, ‘-어다가’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목적어가 같아야 한다. 즉 후행절도 타동사를 서술어로 가지는 문장이다. 반면, ‘-어서’는 후행절의 목적어가 다르거나 없을 수도 있다. ‘-어서’에 이끌린 문장은 용언의 쓰임이 ‘-어다가’에 비해 폭넓다. 그러므로 선, 후행절의 목적어가 같은 (37)과는 달리, (38)은 ‘-어서’만 정문이 된다.

- (37) ㄱ. 창수가 집에서 빵을 {만들어다가, 만들어서} (그 빵을) 먹었다.
 ㄴ. 지갑을 {찾아다가, 찾아서} (그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 (38) ㄱ. 돈을 {*모아다가, 모아서} 해외여행을 갔다.
 ㄴ. 등을 {*두드려다가, 두드려서} 소화시켰다.
 ㄷ. 그는 간식을 {*먹어다가, 먹어서} 입맛이 없었다.

셋째, ‘-어다가’는 ‘옮기-’, ‘끌-’, ‘밀-’, ‘당기-’ 등과 같은 이동 타동사와 잘 어울려 쓰이고, ‘-어서’ 역시 선행용언으로 이동 타동사를 쓸 수 있다.

- (39) ㄱ. 꽃을 다른 화분으로 {옮겨다가, 옮겨서} 심었다.
 ㄴ. 돈이 부족해도 공금을 {끌어다가, 끌어서} 쓰면 안 돼.
 ㄷ. 한쪽 난간에서 그 석상을 {밀어다가, 밀어서} 아래로 떨어뜨렸다.
 ㄹ. 그 줄을 쪽 {당겨다가, 당겨서} 뽕뽕 묶어 버렸다.

넷째, ‘-어서’의 선행절이 후행절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쓰이는 문장에서 ‘-어다가’는 쓰이지 않는다.

- (40) ㄱ. 호랑이가 토끼를 {*몰어다가, 물어서} 죽였다
 ㄴ. 창수가 수도꼭지를 반대로 {*돌려다가, 돌려서} 틀려고 했다.

다섯째, ‘-어다가’는 ‘마시-, 삼키-, 들이키-, 먹-’, ‘없애-’ 등과 같이 행위로 인해 그 대상이 후행절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동사와는 결합하지 못한다. 반면 ‘-어서’는 결합할 수 있다.

- (41) ㄱ. 그는 술을 다 {*마셔다가, 마셔서} 주문해야 했다.
 ㄴ. 부동산 거품을 {*없애다가, 없애서} 경제를 활성화하자.
 ㄷ. 증거가 되는 종이를 {*삼켜다가, 삼켜서} 없애 버렸다.

여섯째, 보조용언 ‘놓(두)-’, ‘주-’는 후행절의 용언으로 ‘-어다가’와는 어울리나 ‘-어서’와는 어울릴 수 없다.

- (42) ㄱ. 화병을 식탁에 {올려다(가), *올려서} 놔다
 ㄴ. 김밥을 {만들어다(가), *만들어서} 놔으니 나중에 먹어라.
 ㄷ. 너 대신 짐을 {옮겨다(가), *옮겨서} 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일곱째, ‘-어서’는 ‘모시-’, ‘가지-’ 동사와 어울릴 경우 후행절에 대한 계기나 이유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데려-’ 동사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또한 (44)에서 보듯이, ‘-어다가’가 쓰이는 자리에 ‘-어서’를 쓰지 못한다.

- (43) ㄱ. 귀빈을 {*모셔다가, 모셔서} 영광입니다
 ㄴ. 돈을 많이 {*가져다가, 가져서} 탈이 나는 사람도 있다.
 ㄷ. 고아를 {데려다가, *데려서} 친자식처럼 키웠다.

- (44) ㄱ. 귀빈을 {모셔다가, *모셔서} 푸대접하다니!
 ㄴ. 그 서류는 내가 {가져다가, *가져서} 줄게요.
 ㄷ. 아이를 {데려다가, *데려서} 깨끗이 씻겼다.

여덟째, ‘-어다가’와 ‘-어서’는 선어말어미 ‘-었-’,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다가’와 달리 ‘-어서’는 선어말어미 ‘-시-’와는 결합한다.

- (45) 가. 은행에서 돈을 {*찾았어다가, *찾았어서} 등록금을 냈어요.
- 나. 은행에서 돈을 {*찾겠어다가, *찾겠어서} 등록금을 냅니다.
- 다. 어머니께서는 해마다 축을 직접 {*뜯으셔다가, 뜯으셔서} 떡을 만드십니다.

5. 마무리

‘-어다가’와 ‘-어서’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의미상 시간적 선후 관계를 드러내는 접속어미이다. 이 두 접속어미는 특정 언어환경에서 유사하게 쓰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다.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 글에서는 ‘-어다가’와 ‘-어서’의 의미기능과 통사적 특징을 각각 살펴, 이를 바탕으로 이 두 접속어미 쓰임에 대해서 비교해보았다.

먼저, ‘-어다가’와 ‘-어서’의 의미기능이다. ‘-어다가’는 선행동작을 바탕으로 하여 후행동작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접속어미이며, 이를 위해 물건이나 대상이 있는 쪽으로 ‘가까이 움직이는 행위’도 들어 있는 접속어미이다. ‘-어서’는 선행절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동작.상태’를 보여주고 후행절에서는 순차적이고도 연속된 동작.상태를 나타내는 접속어미라고 할 수 있다. ‘-어서’에 의한 문장은 순차적이고 연속된 동작.상태를 보여주지만, 선행동작이 후행동작을 하기 위한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단순히 ‘먼저 일어난 행위나 상황’을 나타내는 문장이 될 수도 있다.

‘-어다가’와 ‘-어서’가 유사한 쓰임을 보일 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용언이 타동사일 경우이다. 이때 선행동작은 후행동작을 하기 위한 연속된 전제동작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다가’에 의한 문장은 어색한 문장이 된다. 둘째,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와 목적어가 같아야 한다. 즉 후행절도 타동사를 서술어로 가지는 문장이다. 셋째, ‘-어다가’는 ‘옮기-’, ‘끌-’, ‘밀-’, ‘당기-’

등과 같은 이동 타동사와도 어울려 쓰인다.

‘-어다가’와 ‘-어서’가 상이한 쓰임을 보이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서’에 의한 선행절이 후행절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쓰이는 문장에서는 ‘-어다가’가 쓰이지 않는다. 둘째, ‘-어다가’는 ‘마시-, 삼키-, 들이키-, 먹-,’ ‘없애-’ 등과 같이 행위로 인해 그 대상이 후행절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동사와는 결합하지 못한다. 반면 ‘-어서’는 결합할 수 있다. 셋째, 보조용언 ‘놓(두)-’은 후행절의 용언으로 ‘-어다가’와는 어울리나 ‘-어서’는 보조용언을 취할 수 없다. 넷째, ‘-어다가’는 ‘가지-’ ‘데리-’, ‘모시-’ 등과 어울려 ‘가져다가’, ‘데려다가’, ‘모셔다가’ 형태로 현대어에서 관용 어휘처럼 쓰이고 있다. 반면 ‘-어서’는 ‘데리-’ 동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또한 ‘모시-’, ‘가지-’ 동사와 어울릴 경우 후행절에 대한 계기나 이유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마지막으로 ‘-어다가’와 달리 ‘-어서’는 선어말어미 ‘-시-’ 와 결합한다.

참 고 문 헌

- 권재일(1983), 「현대국어의 접속문어미 연구」, 『언어학』 6,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3-21면.
- 김문웅(1982), 「-다가류의 문법적 범주」, 『한글』 176, 한글학회, 149-178면.
- 김미희(2014), 「연결어미 ‘-다가’와 ‘-어다가’의 문법 체계상 위치에 대하여」, 『국어학』 71, 국어학회, 189-227면.
- 김영희(1975), 「‘-다-아서’에서 ‘다가’까지」, 『연세어문학』 6,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83-108면.
- 박용찬(2014), 「중세국어 ‘다가’와 ‘-어다가’의 문법화」, 『한국어학』 65, 한국어학회, 175-209면.
- 서정목(1984), 「후치사 ‘-서’의 의미에 대하여」, 『언어』 9-1, 한국언어학회, 155-186면.
- 서태룡(1988), 『국어활용어미의 형태와 의미』, 탑출판사.
- 안명철(1985), 「보조조사 ‘-서’의 의미」, 『국어학』 14, 국어학회, 478-506면.
- 오경진(2002), 「연결어미 ‘-어다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7,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5-218면.
- 유송영(1994), 「‘-어서’의 형태소 정립과 그 통사·의미적 기능」, 『언어』 19-1, 한국언어학회, 177-199면.
- 이기갑(1998), 「‘-어/어서’의 공시대에 대한 역사적 설명」, 『담화와 인지』 5-2, 담화인지언어학회, 101-121면.
- 이남순(1996), 「다가」攷, 『이기문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신구문화사.
- 이숙(2006), 「다가의 용법에 대하여」, 『한국어학』 32, 한국어학회, 213-240면.
- 이승녕(1976), 「15세기 국어의 쌍형어 ‘잇다’와 ‘시다’의 발달에 대하여」, 『국어학』 4, 국어학회, 1-23면.
- 임홍빈(1975), 「不定法(어)와 狀態陳述의 {고}」, 『국민대학교논문집』 8, 국민대학교, 13-36면.
- 최현배(1960), 「다시 ‘-다다, 닥아, 닥이다’에 대하여」, 『한글』 127, 한글학회, 7-27면.

【Abstracts】

A Study on the Conjunctive Ending '-eodaga' and '-eoseo'

Yang, Jihyeon

In the modern language, '-eodaga' and '-eoseo' are described as conjunctive ending presenting time based order relationship of antecedent and postcedent clauses in terms of meaning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clearly look into its meaning and usage as their meanings are similarly described and their usage may overlap depending on the language environment. Hence, this research looks into how '-eodaga' and '-eoseo' are used from the medieval age as well as their syntactic characteristics. Afterwards, it also tries to compare use of these two conjunctive ending.

The '-eodaga' is a conjunctive ending which allows sequential happening of the following action based on the preceding action. This also has a meaning of 'movement' towards a thing or subject. A sentence connected by '-eoseo' shows sequential and continuous action and status but depending on the following sentence, it could be simply a sentence implying preceding action or status or others. Furthermore, this is used differently except the case when subject and object of antecedent and postcedent clauses with transitive verb are the same. In case of '-eodaga' this is a form of 'gajyeodaga,' 'deryeodaga' and 'mosyeodaga' that is used as an idiom in modern language. However, for '-eoseo' if this is not combined with 'deri-' but used together with verb such as 'mosi-' and 'gajji-' this implies the meaning and cause of the following sentence. The '-eodaga' can be used with auxiliary predicate 'not(du)-', 'ju-' but '-eoseo' cannot. For '-eoseo' is a precedent predicate which can be used

together with transitive verb as well as intransitive verb and adjective. Those sentences connected by ‘-eoseo’ can make antecedent clause as a tool or method of the postcedent clause. Furthermore, this changes verb that cannot be the object of the postcedent clause into antecedent verb when combined with ‘masi-’, ‘samki-’, ‘deuliki-’, ‘meok-’, and ‘eobsae-’.

Key Words : conjunctive ending, semantic function, syntactic characteristics, sequential, ‘-eodaga’, ‘-eoseo’

이 논문은 2020년 02월 06일에 투고되었으며, 2020년 03월 1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20년 03월 1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